

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민간 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안

- 감염병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 발표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인포데믹 대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행되었다.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철주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

< 인포데믹이란? >

- ◆ 부정확한 정보를 과도하게 전달하여 정보의 진위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조작하여 정보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

* 자료: 이철주 외(2023).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된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연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 인포데믹으로 인한 피해 >

- ◆ (사회적 비용) 인포데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편 비용은 2020년 기준 약 8,085억원(이미숙(2022).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불편비용 추정 연구)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WHO(2022). Infodemic Management in Risk Communi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 ◆ (인명피해) 가짜뉴스로 전 세계 최소 800명 숨져 (JTBC 20.08.13)
캐나다서 잘못된 코로나 정보로 9달간 최소 2천800명 사망 (연합뉴스 23.1.27.)

< 연구 내용 및 방법 개괄 >



연구진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 관련 허위정보의 노출 및 공유 행위를 묻는 설문조사와 소셜 미디어, 특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인포데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 수용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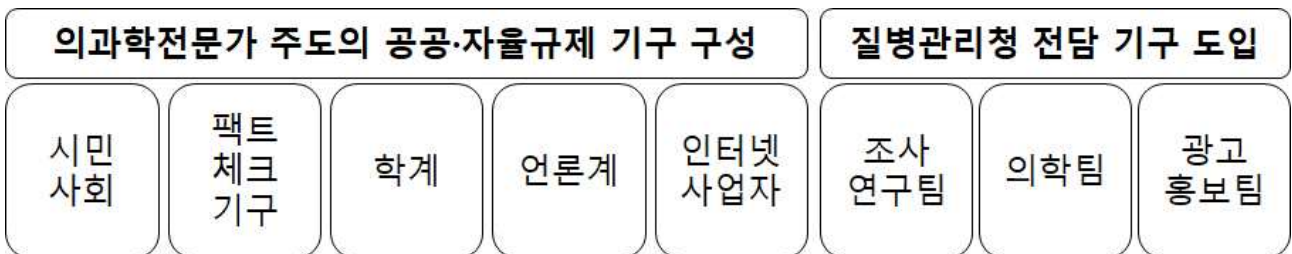
수용자 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허위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면 정보를 공유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습득한 건강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성향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용자 분석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선제적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불확실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포데믹 대비·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거버넌스 체계는 의과학전문가와 함께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민간 기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 형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 거버넌스 구성 연구진 제안 >



더 나아가 위기소통 거버넌스 체계를 질병관리청 내부에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조직은 조사연구팀, 의학팀, 광고홍보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에서 활용하는 ‘인사이트 보고서(Insight Report)’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 보고서는 다양한 정보 환경과 자료원(data source)을 분석하여, 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 절차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서울대 이철주 교수(연구책임자)는 “인포데믹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인 만큼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포데믹 거버넌스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근거 기반의 팩트체크와 양방향 소통이 수행된다면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연구 주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책임자	교수	이철주	02-880-4105
		담당자	연구원	김유진	02-880-6466

* 연구과제 관리 :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043-719-7780), 구용민 서기관(043-719-7780), 이철호 연구원(043-719-7780)